

몰타에서 걸프로

오랫동안 중동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N형이 내게 이런 얘기를 들려 주었다. 어느 한국인 근로자가 우연히 길바닥에서 가방 하나를 주워 경찰서에 갖다주었더니 덜컥 그를 잡아가두더라는 것이었다. 그 가방을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면 주인이 찾아다니다가 언제라도 발견하게 될 터인데 자리를 옮김으로써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그 구속사유였단다. 글썄, 그게 그렇게 되나?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유는 그것이 열사의 풍토에서 가장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의학적 처방의 관점으로 파악해야 하고, 일부다처의 풍속조차 전쟁에 나가 남자들이 많이 죽어버렸으니 그런 '비상수단'을 통해서나마 인류애(!)를 실천하려는 가혹한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로서는 몹시 낯설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과 제도와는 몹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과 행위가 무턱대고 틀렸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면이 분명히 거기에 엿보인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개시된 현재의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해서도 나는 이 '틀렸다'는 매도에 못지않게 그 '다르다'는 측면에 주목하기를 권유한다. 미리 밝혀두지만 나는 누구나 동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면 결코 무력에 의한 정부의 전복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석유를 몰래 퍼낸다든지 전쟁 외상값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따위의 껄썩한 소행이 이번 공격을 정당화시킬 만큼 명백한 범죄행위가 된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에서 이라크 정부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위협은

과연 누구나 동의하는 응징이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싶을 뿐이다.

사담 후세인은 이번 침공의 명분으로 아랍 세계의 단결, 이슬람의 순결성 회복, 석유자원의 공동 이용 등을 내세웠다. 전쟁도발을 변명하기 위한 정치선전이란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대의’는 제법 타당한, 이를테면 우리에게 전달된 정보나 지식과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석유 판매이익을 독점한 일부 아랍 토후와 왕정의 정치적 부패는 물론이고 그들의 도덕적 타락마저 극에 달했다고 들린다. 물건을 훔쳤다고 도둑의 손목을 자르는 가혹한 형벌이 놀랍게도 비행기에 올라 술주정을 해대는 ‘금주국가’의 왕족 나부랑이에게는 아주 관대하다는 현실이 그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지저분한 얘기는 그만 제쳐놓자. 실상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과거 원유파동의 추이를 예의 주시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일처럼 몰려온 석유달러를 제삼세계에 환류시켜 알라신의 자비를 두루 펼쳐야 했는데, 불행히도 탐욕스런 집권자들이 그 돈을 서구라는 ‘안전한 금고’에 도로 맡겨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이슬람 형제들에 대한 배반이고 제삼세계 인민에 대한 배신이란 인식이 후세인의——그리고 물론 카다피의——분노에 짙게 배어 있다.

“기독교의 박해로 도망했던 술한 유대인들이 이슬람의 영토에 피난처를 구했다”는 막심 로댕송(Maxime Rodinson)의 관찰을 수용한다면 아랍-유대 분쟁은 결코 종교전쟁이 아니다. 오히려 2,000년 전의 미심쩍은 토지대장을 내밀며 ‘내 땅에서 나가 달라’는 유대인의 난폭한 요구에 맞서 아랍 주민이 제기한 생존투쟁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구나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확인해온 바와 같이 주먹을 휘둘러 코피를 내 놓고도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고 슬슬 뭉개버리고, 돌맹이를 날려 대갈통을 깨뜨리고도 ‘어차피 되어버린 일’이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가는 이스라엘의 이른바 ‘기정사실화 작전’과, 그 전술을 막후에서 지원해온 미국의 책략에 아랍 국가들이 터뜨리는 흥분과 격노는 차라리 정직하다. 그러한 비극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제적

영토 할양에 못지 않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이 삼각자로 그려낸 ‘아랍 지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에게 38선이 정녕 분노의 표적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외세가 그어놓은 바둑판 국경선은 진정 원망의 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파나마를 ‘내 뜰처럼’ 생각하고 청소했던(?) 미국보다 쿠웨이트를 ‘내 집처럼’ 여기고 개입했던 이라크에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번의 중동사태에 대한 유럽 강대국의 관심이 원유가격의 안정에 걸려 있다면, 미국의 이해는 단연 아랍 세계의 맹주로 양육해온 사우디 왕정의 보호에 있었다. 따라서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위험한’ 후세인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상 ‘그럴 듯한 핑계’일 따름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이 투하했던 원자폭탄도 가공할 참사를 빚어냈거늘, 하물며 평화를 파괴하려는 무리가 그를 악용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의미에서 그 말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장차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모든 나라의 정권담당자와 그 후계자들로 하여금 일일이 미국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 유달리 후세인에게만 핵병기관리 지능지수를 시험하러 드는 처사는 전혀 설득력 없는 핑계가 된다.

아무튼 미군의 파병은 11세기 이교도 섬멸의 기치를 들고 내습한 십자군의 기억까지 들추어내면서 아랍 민족주의에 불을 당겼고, 그것은 즉시 이슬람의 성지를 외국 군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결의 아래 이란으로 하여금 8년 전쟁의 구원(舊怨)을 묻고 이라크에의 식량과 약품 지원을 선언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미사일이 후세인을 몰아내더라도 그는 아랍의 역사책에 승리자로 기록되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탱크가 사우디 왕정을 지켜내더라도 그들은 패배자로 남게 되리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수습되고 난 다음에도 허약한 왕정의 존립을 위해 미군의 주둔은 당분간 불가피할 터이므로 아랍 세계 내부에서 사우디의 처지는 한층 더 고립되고 동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사우디 경호에 나서는 동안 국제원유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그 단기적 이익이 아랍국가들에 의한 자원민족주의의

반격을 유도함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벌써 미국은 팔레비를 만드는 일이 곧 호메이니를 만드는 일이란 역사의 교훈을 잊고 있다. 다만 지금은 사우디에 팔레비를 만들고 이라크에 호메이니를 만든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정작 나는 이번 사태의 처리가 이른바 몰타 정신이 구현되는 첫번째 경우라는 점에 특별히 주목한다. 그것은 동시에 페레스트로이카의 소위 '인류적 가치'가 세계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첫번째 경우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가?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완충지역에 병력을 진주시켰던 사례를 제외한다면, '다국적 군대'라는 국제연합 명의를 공격군 파견은 한국전쟁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군대 주둔비용의 부담이란 해괴한 요구에도 각국은 묵묵히 순종했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브래디라는 미국 재무장관이 '수금사원'으로 얼마 전에 다녀갔다. 아마도 평소 같으면 미국의 이런 요청에 팔팔 뛰었을 프랑스가 군대를 보낸 것이야 원유의 안정 공급이란 이익이 걸렸기 때문이겠으나, 유엔 가맹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엉뚱하게도 그 전쟁의 뒷돈을 대야 했던 사정은 그야말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후세인이 물려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려갈 사다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한 충고(『뉴스위크』 9월 10일자)는 그 사다리 대신에 미사일과 항공모함을 동원함으로써 묵살되고 말았다. 이제 미소가 손만 잡는다면 무엇이든 못할 짓이 없게 된 '팍스 루소-아메리카나'의 신기축이 형성된 것이다. 이 틈새에서 민족해방투쟁이나 약소국가의 이익보장 따위는 간단히 뭉개지고 만다. 페레스트로이카와 몰타 이후 재편된 새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위험이다. 걸프에서 과시된 강자 위주는 리는 항시라도 한반도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1990년 9월 18일자

자원 제국주의의 망령이

이른바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면서 부시 대통령이 내린 결단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율이 85%까지 올라갔다. 재임중 최고기록이라니 전쟁은 애국심을 만들어내고, 애국심은 또 맹목적인 인기와 열광을 만들어내는 모양이다. 전투는 미국 해군의 토머호크 미사일 공격으로 개시되었는데, 그중 85% 가량이 타격 목표에 적중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15%의 미국 국민보다도 과녁에서 벗어난 15%의 포탄에 나의 관심이 더 크게 기울는 이유는 대강 이러하다. 군사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135만 달러라는데, 그렇다면 첫날 발사된 150기 가운데 1,200억 원 어치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했으나, 나머지 200억 원 어치는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낭비된 셈이다. 서퍽짜리 나의 인도주의로는 선뜻 그 비효율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낭비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리의 주머니는 자꾸 가벼워지고 반대로 어깨는 자꾸 무거워질 터이기에 선불리 박수치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다. 걸프 전비의 한국 분담금 5억 달러는 내가 마신 소주 한잔이나 내가 받은 고료 한푼에도 어김없이 붙어다니는 세금의 한 모퉁이를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1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로부터 역산하면 1초에——그래 1초에——830만 원의 돈이 화약내를 풍기며 잿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 된다. 나는 그 포연에 가린 이번 전쟁의 정치학을 이해할 만한 안목은 갖추지 못했지만 거기에 담긴 경제학만은